

## Characteristics of the performance script of "Hong Gil-dong jeon," adapted as Lotus Bud

Kim, Nam-seok

Professor, Pukyong National University

darkjedi73@naver.com

### Abstract

**Objectives** Koreans who migrated to Hawaii in the 1930s made and performed a new play called "Lotus Bud" by adapting "Hong Gil-dong jeon". This article discusses the adaptation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the original work.

**Methods** Making a new play called "Lotus Bud" in "Hong Gil-dong jeon", notable characteristics are shown in Act 1 in terms of imprisonment motifs and escape motives, the emergence and confrontation of Elhan as a new father in Act 2, active creation of a hostile figure, the totalization of love motifs, reinforcement of realism, and succession of the divine reason.

**Conclusions** "Lotus Bud" is a text that accepts the motifs and settings of "Hong Gil-dong jeon" while coordinating them to fit the environment and disposition of Hawaiian immigrants, and through this, the difference in artist consciousness that appears in the process of adaptation can be confirm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se differences and to subdivide and organize the causes.

**Keywords** Hong Gil-dong jeon, Lotus Bud, Korean residents of Hawaii, the transformation of Hong Gil-dong jeon and its meaning

---

<https://www.ijkculture.com>, DOI: [doi.org/10.23159/IJKC.2024.12.312.005](https://doi.org/10.23159/IJKC.2024.12.312.005)

Received: Nov. 20. 2024 ; Reviewed: Dec. 10. 2024 ; Accepted: Dec. 20. 2024

pISSN 2951-2808 eISSN 2951-2883

## 로터스 버드(Lotus Bud)로 각색된 연극 <홍길동전>의 특징

김남석

---

---

### 목 차

1. <로터스 버드>의 공연 대본 산출 정황
  2. <로터스 버드>의 감옥 감금 모티프와 가출의 원인으로서는 학대
  3. <로터스 버드>에 등장한 두 명의 아버지와 그 대립 의식
  4. 권력자로서의 안타고니스트들과 정착민의 표상으로서 길동의 대결 의식
  5. 연애 대상의 부각과 연애 모티프의 반영
  6. 신이성의 배제와 연계의 이중성
  7. <로터스 버드>에 투영된 변안 요소와 그 의미
- 
- 

### 1. <로터스 버드>의 공연 대본 산출 정황

1934년 <홍길동전>의 변안 각색작 <로터스 버드(Lotus Bud)>가 하와이(대학) 페링턴 극장에서 공연되었는데, 이 작품의 대본 중 일부가 현재 남아 있다.<sup>1</sup> 이 작품을 제작하고 참여한 이들은 당시 하와이에 거주하고 있던 재외 한인 2세대들이었다. 1900년대를 기점으로<sup>2</sup> 확대된 하와이 이민으로 인해, 당시 하와이에는 적지 않은 한인들이 이주한 상태였다.

---

1 이 연구는 기존 논문인 김남석 (2019)(<홍길동전>의 문화 예술적 변용 사례: <로터스 버드>의 변안과 그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연구, 1)를 재수록한 것이다. 김남석 (2011). 1930년대 하와이 한인 이주민의 각색 희곡 연구. 동남어문논집, 31. 83-106.

2 공식적인 하와이 이민사에서 최초의 한인 이민선이 조선을 떠난 시점을 1902년 12월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연구가 진행되면서 1901년에 ‘피터 류’라는 사람이 이미 하와이에 도착한 바 있으며, 심지어는 1890년대에도 이주한 한인들의 면면이 나타나고 있다. 김원용 (1959). 재미한인오십년사. 미국: USA. 19-21. ; 이덕희. 하와이 이민 100년. 서울: 중앙M&B, 2003, 16~18면 참조 ; 임채완 외, 『재외한인 집거지역 사회 경제』, 집문당, 2005, 17~18면 참조). 본고에서는 1902년을 하와이 이민 원년으로 간주하고 논의하겠다.

공연 연도인 1934년은 최초의 이민으로부터 30여 년이 지난 시점으로, 이민 1세대들의 자식 세대가 태어나 성장하여 대학을 다닐 무렵에 해당한다. 당시 대학생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버니스 김(Bernice Kim), 아더 송(Arthur Song), 로즈 쉰(Rose Shon) 등은 한국의 고전소설 <홍길동전>을 각색 번안하여 하와이 대학교 패링턴 극장에서 <로터스 버드>(미국인 맥퀘스톤 연출)를 공연했다. 관련 기사를 참조하면, 이 공연은 이주민 1세대가 함께 기획한 공연이었다. 그리고 이 공연을 통해 이민 1세대와 2세대가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게 되었다.<sup>3</sup>

2000년대 한국에 소개된 <로터스 버드> 희곡 대본은, 조규익이 한 소장자로부터 전해 받은 3막의 원고를 저본으로 삼아 번역하여 정리한 대본이다. 조규익의 『홍길동 이야기와 <로터스 버드>』에는 원문 대본뿐만 아니라 이를 정리한 현대 영어본 대본과, 다시 이를 한글로 번역한 번역본 대본, 연구 논문, 그리고 관련 기사와 리뷰가 함께 실려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규익의 출간 저서 속 공연 대본을 바탕으로 관련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로터스버드>의 각색 주안점에 대해 정리하는 기존의 논의를 먼저 정리해보자. <로터스버드>에 대해 김남석은 세 가지 논점을 제시했다. 하나는 ‘연화’라는 숙적의 딸을 설정하고 그녀와의 연애를 통해 ‘자유연애’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점이다. 다른 하나는 <홍길동전>의 초반 갈등인 ‘부자갈등’을 활용하여, 언어관과 국가(조국)관에서 차이를 보이는 하와이 한인 1세대와 그 다음 세대의 갈등을 간접적으로 체화한 점이다. 마지막으로 홍길동의 행적으로 유추되는 이력에서 해외 이주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한 점이다. 특히 하와이 이민을 떠났던 사람들이 홍길동의 해외 개척을 통해 동질감과 개척의지를 되새길 수 있다는 점은 그들이 <홍길동전>에 집착했던 중요한 이유를 상기시킨다고 하겠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세 가지 논점(갈등과 내면 심리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으로 인해 하와이 이주자들에게 <홍길동전>은 친근하고 유용한 텍스트가 될 수 있었고, 이러한 텍스트의 특성을 더욱 되살리는 방향으로 원작을 각색하여 새로운 공연 대본으로서 콘텐츠 상 전환을 이룰 수 있었다.<sup>4</sup>

<로터스 버드>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텍스트의 완결성일 떨어지고, 관련 자료의 발굴이 지체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터스 버드>는 <홍길동전> 개작에 대한 유용한 사례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로터스 버드>의

3 조규익 (2003). 홍길동 이야기와 <로터스 버드>. 서울: 월인. 13-14.

4 김남석 (2011). 앞의 논문. 83-106.

각색자가 외국(미국)에 거주하는 재외 한인 2세대였다는 점은, <홍길동전>을 수용하고 감상하는 낯선 세대들의 감각과 취향을 살피도록 만든다. 아울러 이러한 각색(번안) 과정을 거쳐 나타나는 작품의 특징은 원작 소설 <홍길동전>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함께 각색(번안)에서 중점적으로 주목했던 대목과 요소에 대한 생각을 확장하도록 만든다. <로터스 버드>는 <홍길동전>의 영향과 변화의 양상을 살필 수 있는 외면할 수 없는 텍스트라고 할 수 있겠다.

## 2. <로터스 버드>의 감옥 감금 모티프와 가출의 원인으로서는 확대

전술한 대로, <로터스 버드>는 고전소설 <홍길동전>을 근간으로 재창조된 미국(하와이) 거주 재외 한인(조선인)들의 공연 텍스트이다. 문화콘텐츠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작품은 원작의 특성을 활용하여 재외 한인들의 관심사를 투영한 텍스트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고전의 변형 사례는 구소련 재외 한인들(고려인)의 문화예술 역사에서도 확인된 바 있어,<sup>5</sup> 해외에서의 텍스트 변형 사례의 예로 참조할 수 있겠다.

<로터스 버드>의 공연 과정에서 우회적으로 참조해야 할 사실 중 하나는 1889년 선교사 알렌에 의해 이 작품의 영문 번역본이 이미 출간되어 있었다는 점이다.<sup>6</sup> 즉 <로터스 버드> 이전에 이미 <홍길동전>의 번역과 각색이 서구(영어권)에서 어느 정도는 이루어져 있던 셈이다. 비록 이러한 영역 대본을 근간으로 하여 <로터스 버드>가 각색될 수 있었는지는 지금으로서는 확실하게 증빙되지 않고 있으나, 그 관련성을 함부로 배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하겠다.

특히 1막의 공간적 배경을 염두에 두면 이러한 영향 관계는 실제로 상정될 수 있다. <로터스 버드> 1막의 공간적 배경은 ‘옥사’이다.

### ◆ 제1막

(조선조, 흥 판서 집의 옥사. 희미한 빛 속에서 차갑고 삼엄한 분위기가 감돌지만 정갈함을 느끼게 하는 넓은 감방이 눈에 들어온다. 방 뒷벽 높은 곳에 살창이 나 있고 이

5 조규익 (2012). 고려인 극작가 연성용의 고전수용 양상: <창곡이와 흥란> · <지옥의 종소리>를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26. 323-356.

6 백승중 (1995). 고소설 <홍길동전>의 저자에 대한 재검토. 진단학보, 80. 309. ; 이광린 (1979). 한국개회사상연구. 서울: 일조각. 158-191.

창 밖으로 달과 별들이 보인다. 이 벽의 두께가 적어도 90센티미터나 되기 때문에 창가에는 넓은 가로대가 형성되어 있다. 창 위 바깥쪽으로 단집이 얹혀 있고, 창살은 가로대 안쪽으로 쳐 있다. 방의 오른쪽 나무오리로 된 감방 문이 있고 굳게 잠겨 있다. 감방문의 오른쪽으로 집의 안뜰로 이어진 복도가 있다. 이 복도의 불빛이 감방 문을 통해 새어 들어온다. 창살과 감방문의 그림자가 감방 바닥에 무겁게 드리워져 있다. (...중략...) 키가 크고 잘 생긴 스물 두 살의 청년, 길동이 모습을 드러낸다. 한국의 전통 의상을 입었으며 머리를 꼬아 내렸다. 책상 앞에 앉아 3척이나 되는 곰방대 끝에 불을 붙인다. 이제 글 읽기에 정신을 집중하려고 애를 쓴다. 그리고 붓을 들어 글을 쓰다가 옆으로 치워버린다. 신경질적으로 부채질을 하다가, 부채를 다시 옷 속에 집어넣는다. 피리를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굴리고 나서 입에 가져다다가 책상에 다시 내려놓는다. 고개를 좌우로 흔든다. 피리를 유심히 바라본다. 천천히 피리를 집어 들고 꿈을 꾸듯 입술로 가져간다. 눈을 감고 아름아우나 애절한 곡조로 피리를 분다. 새 소리 같은 곡조가 점차 사라져 갈 때, 험상궂은 예뻐이 문에 나타난다. 손에 채찍을 들고 허리에는 단검을 찼다. 문을 따서 열고 화난 얼굴로 들어선다.)<sup>7</sup>

길동은 자신의 집 옥사에 수감되어 있고, 그를 지키는 예뻐이 간수처럼 그를 감시하고 있다. 원작 <홍길동전>에서 길동은 초란의 계략에 의해 산정(山亭)에 올라 공부를 하도록 명령 받는다. 초란이 길동의 운명을 위협한 것으로 꾸미자, 홍판서가 길동으로 하여금 외진 곳에서 수련하고 마음과 공부를 연마하도록 명령한 것이다.

하지만 <로터스 버드>에서는 이러한 홍판서의 의지가 개입되기보다는 길동을 위협 인물로 간주하여 죄수처럼 수감한 사건으로 수용된다. 그러니까 길동은 집안 내부에 연금된 상태이다. 이러한 변화는 사실상 부자 관계를 고려할 때, 좀처럼 납득되기 곤란할 상황이다. 아무리 호부호형을 허락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총애하는 자식을 감옥에 감금하는 행위는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알렌의 해설을 참조하면 이러한 설정은 낯설지 않다. 알렌은 길동을 산정으로 올려 보낸 행위를, 독방에 감금한 행위로 번역했고, 그로 인해 길동을 안전하게 지키려는 아버지의 의도는 무시되고, 홍판서는 ‘비정한 아버지’로 규정되기에 이르렀다.<sup>8</sup>

7 조규익 (2003). 홍길동 이야기와 <로터스 버드>. 서울: 월인. 87-88.

8 이상현 (2019). 학대 아동과 폭도: 홍길동의 두 가지 형상과 <홍길동전> 번역의 계보. 철학·사상·문화,

<로터스 버드>는 이러한 알렌의 영역 대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비정한 아버지의 탄생은 더욱 악한 아버지의 창출로 이어질 수 있었다. <로터스 버드>에서 홍판서는 세상을 어지럽히는 탐관오리이자, 주색잡기로 이성적 판단력을 상실한 한심한 아버지로 상정된다. 위의 지문에서 예팅은 이러한 악한이자 탐관이자 부도덕한 아버지의 수하로 설정되었으며, 그로 인해 예의바른 하인이나 정당한 부하가 아니라 무뢰한이나 자객의 형상을 한 인물로 설정된다.

특히 독거하는 길동을 방문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칼을 든 채로 협박하는 형상은 원작 소설의 자객 '특재'를 연상시킨다. 즉 <로터스 버드>는 홍 판서를 인의도덕을 모르는 악한으로 설정하면서 특재라는 자객 부하를 수하로 둘 수 있는 인물 관계를 형성했다. 원작 소설 <홍길동전>에서 홍판서의 애첩으로 모사꾼인 초란이 구한 자객이 아니라, 홍판서의 직속 수하라는 설정이 가능해진 것이다. 물론 예팅은 홍판서의 애첩인 진주(원작의 초란에 해당)과 은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원작 소설 <홍길동전>에서 초란과 특재의 관계와의 유사성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유사성은 초란의 변형인 진주가 예팅에게 지시를 내리는 대목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 홍판서 (아직도 술에 취해) 암, 도술을 부렸다마다! 바로 이 홍판서의 아들, 길동이 아니더냐. 진주야, 길동을 그냥 두어라. 신출귀몰한 녀석이니 어찌 인간의 힘으로 맞설 수 있겠느냐.
- 진주 도술은 무슨 도술! 피를 쓴 것입니다! 이럴 때 대감께서 길동의 피 절반만 따라갔어도, 그렇게 한심하게 술독에 빠져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두고 보세요. 길동이 장차 대감과 가솔들을 모두 죽이고 말 것입니다.
- 김사 길동 도련님은 신령님이시다!
- 진주 (김사와 예팅에게 거칠게 돌아서며) 이 붕어 대기리 김사를 이놈이 속해 마땅한 연속에다 집어 쳐 넣어라. 예팅, 너는 하인들을 끌고 가서 고을과 산속, 골짜기를 이 잡듯 살살이 뒤져라. 산채로든 죽여서든 길동을 잡아오너라.<sup>9</sup>

30. 161-187.

9 조규익 (2003). 앞의 책. 126.

위의 대목은 <로터스 버드> 1막의 마지막 대목이다. 이 대목에서 길동을 놓친 진주는 예팅에게 길동을 살해하라고 지시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그리고 길동의 가출 정황을 감안할 때, 위의 대목은 진주가 킬러(자객)를 고용하여 길동을 죽이려고 하는 출가 직전 상황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원작 소설 <홍길동전>에서 특재가 길동의 가출을 부추기고 결국 세상으로 나가는 계기를 만든다고 할 때,<sup>10</sup> 진주의 지시와 예팅의 추적은 이러한 원작 소설의 가출 전 상황과 대응된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하와이 한인 이주자들은 길동의 자택 감금을 길동의 탈출 이유로 상정하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서 감금의 정도를 강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홍길동전>의 서사가 길동의 가출과 세상으로의 탈출에서 본격적인 궤도에 도달한다고 할 때, 어린 아이 길동이 집을 나서야 하는 명백한 이유가 필요했다고 하겠다. 그 이유는 감금과 폭행 그리고 위협으로 동기화되었고, 탈출 이후에도 계속되는 추적과 살해 위협으로 유지되었다. 이로 인해 길동은 흥판서와 그의 가족(진주와 예팅까지 포함)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이유가 계속 생성될 수 있었다. 그것은 소년에 대한 가족의 학대였고,<sup>11</sup> 학대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자구책으로서의 가출이었다.

### 3. <로터스 버드>에 등장한 두 명의 아버지와 그 대립 의식

<로터스 버드>에서 인물의 변화 양상(원작 인물의 성격 변화와 새로운 인물의 추가 정황)은 각색 콘텐츠로서의 성향을 알려주는 주요한 특징에 해당한다. 길동과 갈등을 일으키는 인물 중 아버지 흥판서의 변화는 특히 주목되는 변화이다.<sup>12</sup> <로터스 버드>에서 흥판서는 사대부의 체통과 가문의 질서를 강조하는 사대부로서의 흥판서가 아니다. 흥판서는 냉정한 판단력을 상실하고 유흥과 쾌락에 빠져 있는 한심한 관료이다. 더구나 탐관오리로 백성의

10 이상구 (2013). <홍길동전>의 서사전략과 작가의 현실인식. 국어교육연구, 52. 316.

11 서양인들에게 <홍길동전>은 기본적으로 학대 받는 아이의 상황을 그려낸 텍스트로 이해되거나 번역되곤 했다. 이상현 (2019). 앞의 논문.

12 김재용은 <홍길동전>의 두 부분으로 나뉘며, 그 전반부의 이야기가 ‘현실적인’ 이야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재용 (1982). 갈등 중재 이론으로 본 <홍길동전>의 구조와 의미. 한국언어문학, 21. 27-28. 여기서 말하는 ‘현실적인 이야기’는 길동이 그가 속한 사회와 겪는 갈등을 사실적인 관점에서 그려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홍길동전>의 구조를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 <로터스 버드>에서 길동과 부친 흥판서의 갈등은 이러한 현실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각색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신망을 잃고 사사로운 이익을 챙기는 간신의 인상을 풍겨내고 있다.

비록 길동에 대해서는 약간의 자애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자신과 가문의 안위에 위협을 가한다는 모략에 그만 아들의 생명을 도외시하는 용졸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러한 <로터스 버드> 내 아버지의 모습은 원작 <홍길동전>에서는 길동의 가형을 연상시킨다. 길동의 가형은 집안의 안위를 위해 서제 길동을 잡아들이는 역할을 맡는데, 그때마다 대범하지 못하고 너그럽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아버지의 자애와 포용이 제거된 가혹한 혈족의 모습으로만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로터스 버드>의 아버지 흥판서 역시 그러하다. 그는 무능한 관료이고, 신망을 잃은 지도자이며, 가족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가장이다. 이러한 흥판서의 모습은 길동에게는 도덕적/현실적/혈연적/정신적으로 의존할 수 없는 가족의 모습으로 내비친다.

반면 도적의 괴수로 등장하는 이엘한은 길동에게 결핍된 아버지 상을 충족할 수 있는 인물로 설정된다. 흥판서가 아버지로서의 책임과 품위를 잃은 혈연적 아버지라면, 이엘한은 사회의 도덕과 정의를 실현하는 의적으로서의 품모를 지니고 있는 정신적 아버지라고 할 수 있다. 가출하여 피신처를 얻지 못해 방황하는 길동에게 도적의 무리는 가족과 같은 울타리가 되어 준 동료들이다. 그 동료의 우두머리로서 이엘한은 한때 감금된 길동을 구할 계획까지 검토한 고마운 은인이며, 길동이 믿고 생애 목표를 함께 나눌 정신적 지도자이기도 하다.

더구나 이엘한은 길동이 사랑하는 연인 연화의 친아버지이기도 하다. 다만 연화가 길동의 탈출을 돕고 도적들의 본거지를 알려주는 바람에, 연화를 처형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 지도자이기도 하고, 흥판서와의 관계로 인해 길동과의 결혼을 방해하는 혼사 장애물이기도 하다. 결국 길동은 의적으로서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사랑하는 여인을 확보하여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이엘한이라는 정신적인 아버지를 넘어서야 하는 숙명을 외면하기 힘들다. <로터스 버드>의 2막과 3막은 이러한 길동의 시련으로 가득 차 있는 막이다.

원작 <홍길동전>에서 길동은 가출 이후 사회 개혁을 위해 도적을 이끌고 활빈 행위를 일삼는 의적으로 성장한다. 무리를 이끄는 우두머리가 된 길동은 사사로운 이익에 매몰되기 보다는, 민중과 국가라는 거시적 목표를 염두에 둔 채로 활동하는 일종의 어른이 된다. 하지만 <로터스 버드>에서는 연화의 구출과 그녀와의 결연이라는 사적인 목표가 더욱 중대한 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2막에서 이엘한과 대결하면서도 길동은 연화의 탈출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했으며, 3막에서는 구금된 연화를 구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안타깝게도 2막과 3막은 온전하게 남아 있지 못하다). 이러한 2막과 3막의 대응 위치

는 원작의 활빈당 조직과 해인사 침탈로 여겨지는데, ‘악인 정치’와 ‘빈민 구휼’이라는 본래 목적보다는 연화와의 결연과 연화의 구출이라는 개인적인 목적이 더욱 분명하게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변모 양상은 <로터스 버드>를 각색한 이들에게 사회적 개혁이나 민중의 구휼이 현실적인 목적으로 수용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와이 이민 2세대 한인들에게 연화로 대변되는 연인(연애)와, 이러한 연애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장인)이나 혼사 장애 요소를 극복하는 과정이 더욱 관심 있는 주제로 다가왔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각색 이유는 흥판서라는 무능하고 이기적인 아버지와 이엘한이라는 유능하지만 인정받기 어려운 아버지를 만들어 내고 말았다. 결국 2막에서 이엘한의 등장은 흥판서라는 육체의 아버지를 벗어났지만, 이엘한이라는 정신적 아버지를 넘어서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예증이라고 하겠다.

이엘한이 법적인 아버지(예비 장인)로 등장한다는 점은 홍길동이 사회적으로 새로운 가정을 형성해야 한다는 일종의 내락으로 볼 수 있다. 원작 <홍길동전>에서 길동은 흥판서와의 관계를 끊지 않고 있었기에—즉 흥 씨 가문의 일원으로 조선 벌열 귀종의 일원임을 부인하지 않았기에—임금의 토포와 추적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결국에는 스스로 체포되거나 자수하는 형국의 사건을 경험해야 했다. 하지만 <로터스 버드>에서 길동을 추적하는 자는 다름 아닌 가문의 세력으로 길동은 이러한 가문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라도 자신만의 새로운 가족이 필요한 처지였다.

이엘한은 현실적인 조직으로서의 새로운 가족(의형제로서의 도적들)과 결혼에 의한 가족을 모두 제공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그래서 홍길동으로서는 재생과 부활을 위해서라도 이엘한과의 관계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유지해야 했다. 그것은 조직의 관점에서 보면 후계자의 위치일 것이고, 미래 가족의 입장에서는 법적인 아들(사위)일 터이므로,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확대된 의미에서 전수하는 자와 전수 받는 자의 세대교체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로터스 버드>는 하와이 이주 한인 2세대의 정신적 고민과 열망을 담고 있는 텍스트였고 그 내부에는 부자 간 갈등으로 요약되는 세대 간 갈등이 중요한 맥락으로 투영되어 있다.<sup>13</sup> 원작 <홍길동전>의 흥판서는 ‘대표적인 아버지 세대’의 인물이었지만 하와이 이민 2세대에게는 또 다른 세대교체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다고 해야 한다.

13 <로터스 버드>에서 투영된 흥판서와 길동의 갈등은 원작의 갈등에서 비롯되었고 하와이 이주 한인 2세대의 상황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가감되어 수용되었다. 김남석 (2011). 앞의 논문. 90-96.

이렇게 <로터스 버드>를 이해한다면, 흥판서가 가정에서 자신들을 훈육하는 한국인 아버지에 해당한다면, 이민 사회에서 주도권을 쥐고 이민자들의 선임 세대로 활동하는 기존 이민자들 역시 이주 2세대가 경험하고 극복하여 결국에는 공존해야 할 사회 세대로서의 선임 세대에 해당했다. 결국 물리적 아버지에게서 정신적 아버지로 변모하여 갈등을 겪는 <로터스 버드> 속 길동의 행보는, 가정에서의 아버지에 이어 사회에서의 선임 세대와 대면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어야 했던 후임 세대의 또 다른 세대론을 담게 된다. <로터스 버드>는 가정에서 사회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마주하고 대결해야 할 아버지의 또 다른 형상을 담고 있을 수밖에 없다.

#### 4. 권력자로서의 안타고니스트들과 정착민의 표상으로서 길동의 대결 의식

이엘한의 창조로 인해, 생물학적 아버지 흥판서는 숙적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기를 염원하는 수장으로서의 성격도 부여받을 수 있었다. 흥판서는 장차 ‘길동이 제왕과 제후에 오를’ 것이라는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sup>14</sup> 아들 길동의 구금을 강제하는 냉혹한 인상을 더욱 강하게 띤 인물로 치부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덕망과 인의를 앞세우는 아버지가 아니라 길동의 애정 문제를 강압과 감금으로 다스리는 폭력적인 존재로서의 아버지가 제시된 셈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변화는 비록 작명 상의 변화는 아니라고 해도, 인물 의 성격상의 변화로 유효하다고 하겠다.

앞에서 살펴 본 대로 사옥에 갇혀 있는 길동의 처지는 아버지 흥판서의 무자비함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기에 충분하다. 하와이 이주 한인(그중에서도 2세대)들에게 적서차별이나 신분 제약이 현실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각색 과정에서 길동과 부친(흥판서)의 갈등은 자유 연애를 둘러싼 입장 차로 변화되었고, 이러한 입장차는 가문의 숙적과 관련된 기본적인 갈등마저 포함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집안을 망칠 것이라는 ‘늪은 무당’의 예언까지 가미된 것이다. 이러한 예언의 단초는 원론적으로 원작 <홍길동전>에서 차용된 것이기는 하다.

14 <로터스 버드>, 조규익 (2003). 앞의 책. 95.

◆

이튿날 공이 내당으로 들어와 부인으로 더불어 길동의 비범함을 일컬으며 다만 천생임을 한탄하고 정히 말씀하더니 문득 한 여자가 들어와 당하에 문안하거늘, 공이 괴이히 여겨 문왈, “그대는 어떠한 여자완데 무슨 일로 왔느냐.” 그 여자 왈, “소인은 관상하기로 일삼더니, 마침 상공 문하에 이르렀나이다.” 공이 차언을 듣고 길동의 내사(來事)를 알고자 하여 즉시 불러 보니, 상녀(相女)가 이윽히 보다가 놀라 왈, (...중략...) “공자의 상을 보온즉 흥중의 조화가 무궁하고 미간에 산천정기 영롱하오니, 짐짓 왕후의 기상이라. 장성하면 장차 멸문지화를 당하오리니 상공은 살피소서.” 공이 청파에 경아(驚訝)하여 묵묵반향(默默半餉)에 마음을 정하고 왈, “사람의 팔자는 도망키 어렵거니와 너는 이런 말을 누설치 말라.”<sup>15</sup> (밑줄:인용자)

원작 <홍길동전>에서도 무녀의 고변(이 여인의 방문은 초란의 흥계에 의한 것이었다)은 홍길동이 산중에 올라 홀로 공부를 해야 하는 원인이 된다. 하지만 원작의 홍판서가 무녀의 말을 듣고도 아들에 대한 원망이나 가혹한 처벌을 감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작 <홍길동전>은 객관성과 인간미를 지닌 아버지를 잃지 않았다고 해야 한다. 하지만 <로터스 버드>에서는 이러한 홍판서의 흥금을 간과하고 아들과 대결하는 아버지의 상으로 옮기는 데에 초점을 두고 말았다. 물론 그 과정에는 이엘한이라는 숙적과의 대결 의식도 강하게 작용하였다. 원작 <홍길동전>과 달리 홍판서는 이미 강력한 안타고니스트를 상정한 인물이었다.

이렇게 등장하는 숙적 가문의 수장 이엘한 역시 주목되는 인물이다. 원작 <홍길동전>에서는 정확한 실체를 찾기 어려우나, 길동이 가출 이후에 만나는 도적 떼의 수장과 여러 모로 유사한 성향일 지니고 있다고 해야 한다. 부자간의 갈등 요인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원작의 가출 이후 사연이 결합되면서 이엘한이 만들어진 셈이다.

<로터스 버드>에서 이엘한은 영어 식 이름을 지닌 등장인물이다. 성(姓)으로는 한국(조선)인의 느낌을 주지만, 이름은 영어 식 구문을 활용한 이름이다. 이러한 영어식 이름에서도 풍겨 나오지만, 이엘한이라는 존재는 하와이 이민자들의 정착 과정에서 마주했던 기존 이주자(혹은 기존 정착자 내지는 기득권층)의 입장을 일정 부분 대변하고 있다. 연화가 아름답고 정당하고 부덕을 갖춘 여성(인물)로 상정되어 길동의 영혼을 사로잡는 짝이었다면, 부친 이엘한은 그러한 그녀를 길동에게 내주지 않고 결혼을 방해하며 길동의 꿈을 가로막는 권력

15 김기동/전규태 (1984). <홍길동전><이해룡전><정진사전><최척전>. 서울: 서문당. 15.

자의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엘한 길동의 또 다른 아버지로서 극복해야 할 대상인 것은 분명하지만, 혼사 장애로 인해 이엘한을 길동의 안타고니스트로로 상정되기에 충분한 인물이다. 길동에게는 안타고니스가 더 예비되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예텅이다. 길동이 갇힌 옥사를 지키는 간수(하인) 예텅 역시 길동의 소망을 부정하고 그의 앞길을 방해하는 인물에 해당한다. 예텅은 자신의 신분을 감안하지 않고, 수감자 길동을 냉혹하게 다루는 인물이며, 그로 인해 정착의 의지를 봉쇄하는 인물의 전형을 보여 준다.



키가 크고 잘 생긴 스물 두 살의 청년, 길동이 모습을 드러낸다. 한국의 전통 의상을 입었으며 꼬리를 꼬아 내렸다. 책상 앞에 앉아 3척이나 되는 곰방대 끝에 불을 붙인다. (...중략...) 피리를 유심히 바라본다. 천천히 피리를 집어 들고 꿈을 꾸듯 입술로 가져간다. 눈을 감고 아름다우나 애절한 곡조로 피리를 분다. 새 소리 같은 곡조가 점차 사라져갈 때, 협상 곳은 예텅이 문에 나타난다. 손에 채찍을 들고 허리에는 단검을 찻다. 문을 따서 열고 화난 얼굴로 들어선다).

예텅 (덤빌 듯이) 그만두지 못해? 대감마님께서 그 빌어먹을 피리 소리 싫어하시는 거 몰라?

길동 (깜짝 놀라서) 무희들 노랫소리에 피리 소린 들리지도 않을 것이오!

예텅 흥! 네 피리소리가 새 우는 소리처럼 벽을 넘는대두? (위협조로) 어디 한 번만 더 붙어봐, 다시는 그놈의 피리 구경 못하게 해줄 테다.<sup>16</sup>(밑줄:인용자)

간수로 등장하여 길동을 위협하는 예텅의 태도는 상전의 아들을 꺾박할 정도로 냉혹하고 죄 없는 이를 괴롭히는 잔인한 성격을 드러내도록 유도하고 있다. 예텅과 길동의 갈등 상황에 집중할 때, 예텅은 길동에게 명령을 내리고 생존을 위협하는 기득권층의 횡포와 무관한 인물은 아니다. 지배자(감시자)와 피지배자(재소자)의 갈등 상황이 하와이 이주민으로서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할 때, 예텅은 길동의 긍정적 면모에 대비되어 악인의 품모를 풍기는 인물로서의 형상화를 염두에 둔 인물 창조라고 하겠다.

16 조규익 (2003). 앞의 책, 87-88.

특히 예팅의 복색은 칼을 차고 있다는 점에서 원작 <홍길동전>의 특재를 연상시킨다. 원작 소설에서 특재 역시 길동의 강력한 안타고니스트로 등장하여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인물이었고, 이러한 특재의 신표는 칼이었다고 해야 한다. 고립된 공간에 위치한 길동을 찾아와 위협을 가하면서 칼이라는 무기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예팅은 인물형은 특재의 흉포함과 닮아 있다고 해야 한다.

피리의 등장도 예팅이 특재의 변형이라는 점을 암시하는 근거이다. 특재가 나타나는 원작 소설의 대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사경을 하여 한 사람이 비수를 들고 완전히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지라. 길동이 몸을 감추고 진언을 염하니 홀연 일진광풍이 일어나며 집은 간 데 없고 첩첩한 산중의 풍경이 거룩한지라, 특재 대경하여 길동의 조화가 신기함을 알고 비수를 감추어 피하고자 하더니 문득 길이 끊어지고 층암절벽이 가리었으니 진퇴유곡이라. 사면으로 방황하더니 문득 적(笛) 소리 들리거늘, 정신을 차려 살펴보니 일위 소동(小童)이 나귀를 타고 오며 적 불기를 그치고 꾸짖어 왈, “네 무슨 일로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죄한 사람을 벌하면 천양(天殃)이 없으리요.”하고 진언을 염하더니 홀연 일진흑운이 일어나며 큰 비 붓듯이 오고 사석(沙石)이 날리거늘 특재 정신을 수습하여 살펴보니 길동이라. 비록 그 재주를 신기히 여기나, “어찌 나를 대적하리오.”하고 달려들며 대호(大呼) 왈, “너는 죽어도 원망치를 말라. 초란이 무녀(巫女)와 상자(相者)로 하여금 상공과 의논하고 너를 죽이려 함이니 어찌 나를 원망하리오.”하고 칼을 들고 달려들거늘 길동이 분기를 참지 못하여 요술로 특재의 칼을 앗아들고 대매(大罵) 왈, “네 제물을 탐하여 사람 죽임을 좋아 여기니 너 같은 무도한 놈을 죽여 후환을 없이하리라.”하고 한번 칼을 드니, 특재의 머리 방중에 내려지는지라. 길동이 분기를 이기지 못하여 이 밤에 바로 상녀를 잡아 특재 죽은 방에 들이치고 꾸짖어 왈<sup>17</sup>(밑줄:인용자)

위의 원작 소설의 대목에서 특재는 길동을 죽이려 산정에 침입했다가, 길동이 부는 적(笛), 즉 피리 소리에 현혹되고 놀라게 된다. <로터스 버드>에서도 길동이 피리를 불자, 신경질적인 예팅이 찾아와 피리 연주를 금지하는 발언을 한다. 핑계는 피리소리가 감옥을

17 김기동/전규태 (1984). 앞의 책. 17-18.

넘어 밖으로 들리기 때문이라고 둘러대고 있지만, 예팅은 근본적으로 길동의 피리소리를 매우 싫어한다는 인상을 남기고 있다. 이것은 원작 소설의 설정에서 특재와 길동의 대결에 피리소리가 투입한 상황에서 유래한 각색일 것이다.

위의 인용문을 보면 칼을 든 자는 특재였고, 길동은 이를 빼앗아 자신의 소유로 삼는 대목이 등장한다. 이러한 원작의 설정은 다음과 같은 대목을 이해하는 데에 단서를 제공할 것이다.



(음악소리와 웃음소리 크게 들리다 멀어진다. 길동이 맹렬한 기세로 예팅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동시에 단검을 잡아 빼려 하지만 단념한다. 예팅이 되돌아보고 채찍을 쳐든다. 길동 몸을 움츠리고 창가로 가 서서 왼 팔을 창에 올려놓고 예팅을 쳐다본다. 예팅은 길동을 위 아래로 쳐다보며 문으로 간다. 문을 세게 닫고 나간 뒤 그리고 곧바로 가버린다. (...중략...(그(멘사:인용자)는 길동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창을 탁탁 친다. 길동이 긴장하여 허리를 세우고 단검에 손을 댄 채 주위를 돌아본다. 그리고 경계를 풀지 않고 짹째 창으로 돌아온다. 멘사에게 반갑게 두 팔을 뻗는다. 음악 사라진다)<sup>18</sup>(밑줄:인용자)

위의 상황은 조규익이 원작 대본을 번역하면서 난감함을 느낀 대목이다. 밑줄 친 첫 문장을 보면, 수감되어 있던 길동의 예팅의 공격적인 움직임에 대항하려고 하면서 단검을 뽑으려 했지만 이를 단념했다는 식으로 번역되어 있다. 번역 부분에 해당하는 원문은 “Gil Dong steps to ward YE TUNG? at the same time reaching for a dagger, but he has none”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조규익은 ‘그에겐 단검이 없었다’로 번역하지 않고 ‘단념한다’로 표현하여 우회적으로 그 의미를 감추고 말았다. 그 이유에 대해 조규익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지문 구절 중 “Gil Dong stiffens, reaches again for dagger. Looks about and back in quick alarm”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즉 “길동은 긴장하여 허리를 세우고 재차 단검에 손을 댄 채 주위를 돌아본다. 그리고 경계를 풀지 않고 짹째 창으로 돌아온다”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has none’의 ‘구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로 해석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sup>19</sup>

18 조규익 (2003). 앞의 책. 89-90.

19 조규익 (2003). 앞의 책. 89.

하지만 조규익 본인도 이러한 해석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는데, 감옥 안에 있는 길동이 칼을 가지고 있는 설정 자체가 어색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원작 소설에서 특재와 길동의 관계로 설명 가능하다. 특재를 대면할 때 길동은 칼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특재의 칼을 빼앗은 이후 손에 칼을 들 수 있었다. 길동은 특재의 칼을 빼앗아 사용한다는 원작의 설정을 활용하면, <로터스 버드>에서 길동이 ‘has none’으로 분명 묘사되었음에도, 예팅이 나간 후에 칼을 소유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길동이 칼을 손에 드는 설정은 1930년대 <홍길동전>의 다른 콘텐츠에서도 주목되는 설정이었다. 가령 1930년대 신무대에서 제작된 연쇄극 <홍길동전>에서는 이 장면을 무대 화했을 것으로 보이는데,<sup>20</sup> 그 근거는 다음과 같은 사진 때문이다.

	<p>명일(10일) 낮부터 단성사에서는 연사 시대극 박영호 작 &lt;홍길동&gt;을 상영하기로 되었다는 바 <u>연출과 주연이 강홍식 군으로 감독이 라운규 군이라 하며 사진의 경계는 아래와 같다.</u> 때는 리조 세종대왕 시대 일즉이 동방의 정치가 호반의 세력이 팽창할 때 가티 초야에서 생긴 영웅은 역적이라고 목을 베이는 시대에 태어 난 홍길동은 스물이 넘도록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였다. “재상가의 천생은 아들 감이 되지 못하느냐” 이러한 그 근처를 흔들어 노치 안할 수 없는 홍길동이었다. 즉 춘섬이라는 종의 몸에서 생긴 그 시절의 천생이지만 아버지는 당시에 국록을 먹고 있는 판서이었다. 급기야 홍길동이는 문필로 룡문에 오를 수 없는 몸이라 병법을 배와 국운을 바로잡으라 하였다. 필경은 출가하여 참천천당의 두목이 되었다. <u>전설 &lt;홍길동전&gt;의 유용한 줄거리만 얼어매 놓은 영화다.</u></p>
<p>홍길동의 역동적인 모습이 소개된 기사와 해당 사진<sup>21</sup> (밑줄: 인용자)</p>	

칼을 든 길동의 모습은 조선의 민중이 상정하는 개혁자의 상징과 같다. 적서 차별로 대표되는 구질서와 기득권 권력에 대항하는 의적과 혁명가로서의 길동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인 것이다. <로터스 버드>에서 구질서의 전복과 새로운 국가 질서의 확립은 각색

20 <홍길동전>과 <젊은이여 우지 말나> 단성사에서 공연. 매일신보. 1932년 9월 26일. 4면.

21 연쇄시대극(連鎖時代劇) <홍길동(洪吉童)>. 동아일보. 1932년 9월 10일. 5면.

(번안) 목표로 설정되지 않았지만, 영웅과 용사로서의 길동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무기를 든 형상이 필요했다고 보인다.

감옥 안에서 예팅과 대결하고 예팅의 칼(단검)을 빼앗아 무기를 마련하는 서사는 길동의 용맹과 무예를 보여줄 수 있는 장면에 해당한다. <로터스 버드>의 1막에서 길동은 예팅과 정식으로 대결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예팅과 진주의 추적을 피해 도망치는 설정을 수용한다고 할 때, 길동의 영웅적 성향을 그나마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 이러한 비수 절취 대목으로 볼 수 있다. 신무대의 연쇄극에서는 장도를 통해 길동의 호쾌함을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이지만, <로터스 버드>에서는 도망자의 신분으로 전략하여 무기마저 감추어야 하는 길동의 처지로 인해 몸에 숨기기 편리한 단도(dagger)를 고수했다고 볼 수 있다.

길동에게 예팅은 현실적인 억압자이고 감시자이다. 이러한 예팅의 모습은 정착 초기 한인들을 감시했던 기존 정착자들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사탕수수 농장을 비롯하여 각종 노동 현장에서 한인들은 자신들을 감시하고 질책하는 기존 감시자들과 항상 대면해야 했다. 이러한 그들의 기억은 작품 속에서도 칼을 차고 위협을 가하면서 구속의 공간으로 몰아넣은 감시자들이자 억압자들의 형해로 남아 있다. 그것이 자객으로서의 특재가 아니라 감시인으로서의 예팅이 탄생한 요인으로 보인다.

하와이 이주민으로서 조선인들의 성취는 비록 성공한 축에 속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기존 정착자들과의 보이지 않는 갈등을 헤쳐 나가야 했다. 조선인들은 이주민으로서의 설움과 압박을 인내하면서 정착 과정을 겪어나갔는데, 예팅으로 상징되는 인물은 길동이라는 약한 대상을 박하는 대항 세력의 이미지를 담보하고 있다. 그러니 길동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와 의 갈등에 이어, 자신의 집 하인에게마저 핍박을 당하면서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지게 되는데, 이러한 처지는 하와이 조선인들에게 공감할 여지가 크다고 하겠다. 결과적으로 하와이 이주 조선인들이 정착 과정에서 기득권층과의 대결이 불가피하다고 할 때, 길동은 하와이 주류 사회에 당당하게 편입하지 못하고 외곽을 걸도는 해외 한인의 처지와 유사하다고 해야 한다. 사회학의 한 이론에 따르면, 길동은 한인으로서의 문화적 정체성은 강하지만 해당 사회에서 참여 폭이 약하여 고립 상태에 빠진 상태라고 할 수 있겠다.<sup>22</sup> 실제로 이러한 고립 상태의 길동은 결국 도적 떼를 찾게 되고 주변으로부터 도피의 유혹을 권유받게 된다.

22 김두섭 (1998). 중국인과 한국인 이민자들의 소수민족사회 형성과 사회문화적 적응: 캐나다 밴쿠버의 사례 연구. 한국인구학, 21(2). 161-163. ; Berry, J.w. (1992).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in a New Society. International Migration, 30. 69-85.

고립된 상태에서 문가를 서성이며 주류 사회(가문과 집단)의 당당한 구성원이 되려는 길동의 욕망은 기본적으로 하와이 한인들에게 공감을 확보할 수 있는 내면 갈등이었으며, 그로 인해 길동의 모험과 대결은 그들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큰 서사였다고 해야 한다. <로터스 버드>의 안타고니스트는 이러한 길동의 의지와 행로를 방해하여, 하와이 한인들이 현실에서 경험한 대항 세력의 의미와 힘을 강조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가치관의 공유가 홍길동에게 서구식 작명을 이은 안타고니스트와의 대결(갈등)을 유도했다고 할 수 있겠다.

## 5. 연애 대상의 부각과 연애 모티프의 반영

<홍길동전>에서 길동의 연애는 중요한 모티프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홍길동전>에서 길동의 서사에서 여인(사랑)과 관련된 사건이 나타나는 시점은 울도국 건설 시점이다. <홍길동전>을 ‘가출의 서사’, ‘활빈당 서사’, ‘이상국 서사’로 세분화한다고 할 때, 이상국 건설과 관련된 서사의 마지막 단계에서 ‘두 부인’으로 요약되는 여인들이 등장한다. 그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홍판서 집을 나와 활빈당 활동을 벌인 길동은 조선 국왕과의 협상을 통해 조선에서의 의적 활동을 청산하기로 결정한다. 경관 30장본에 의하면 이후 길동은 남경을 구하고 체도로 이주하는데, 이주 과정에서 망탕산 요괴를 무찌르고 두 명의 여인을 아내로 얻게 된다. 이 과정은 새로운 이주지를 찾는 길동의 행보로 볼 수 있는데, 길동은 체도에서 비축된 힘을 바탕으로 울도국을 점열하고 이상국가를 건설한 이후 왕위에 오르게 된다.

이러한 길동의 행적에서 두 여인은 길동으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로의 이주와 국가 건설이라는 이상을 실현하도록 돕는 모티프 역할을 수행한다. <로터스 버드>에서도 이러한 두 여인의 자취가 드러난다. 진주의 횡포와 유혹을 이겨내고 탈출한 길동은 연화가 준비한 당나귀를 타고 이엘한의 산상 은신처로 접근한다. 이 과정에서 도적들은 내부의 배신자가 있다고 확신하고 그 배신자의 처분을 논의한다. 길동을 자신들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행동과 별개로, 조직의 기밀을 발설하고 규율을 어긴 구성원에 대한 처분을 강행하는 셈이다.

이때 연화를 대신하여 ‘청’이라는 여인이 기밀 누설죄를 자처하고 스스로 처벌 받고자 자수한다. 청은 연화의 친구이자 민대장으로 불리는 행동대장으로 조직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간부이다.

도적의 근거지에 접근하여 비밀 문을 연 길동은 도적들에게 참살의 대상이 된다. 이에 청은 일면부지의 남자를 위해 변명을 하고 애원을 한 이후에 결국에는 자신이 책임을 지고 길동을 살리는 거짓말을 감행한다. 청은 과거 길동이 자신의 목숨을 구한 적이 있다는 변명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그 보답으로 근거지와 비밀 문의 존재를 알려주었다고 거짓말을 한다. 이로 인해 길동은 일종의 면책을 받지만 청은 배신의 대가로 사형의 위기를 겪게 된다.



- 민대장 (청이를 때치며, 남자들에게) 침입자를 죽여라.
- 청 (아버지에게로 몸을 던져 매달리며) 안 돼요! 안 돼요, 죽이지 마세요! 아버지 살려 주세요.
- 민대장 (뒤로 물러서면서 청과 길동을 차례로 수상히 쳐다보며) 이 자가 대체 누구냐?  
(연화가 화려한 차림새를 한 그녀의 아버지, 즉 도적들의 두목인 아버지와 함께 서둘러 나온다)
- 청 이 사람은....., 이 사...
- 민대장 이 사람은...? 내가 이 자를 감쌀 특별한 이유라도 있느냐?
- 청 아니어요! 아니어요.
- 민대장 (돌아서서 길동에게 단도를 겨누며) 네가 내 딸과 각별한 연관이라도 있느냐?
- 길동 (당당하게 허리를 구부려 인사하며) 남자라면 누구나 예쁜 아이에게 각별한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민대장 단도를 쳐들고 길동을 노려본다)
- 청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아버지, 저기! (두목에게 주의를 돌려 시간을 끈다.)
- 연화 (두목에게) 아버지, 제발요! 제발 그를 용서해 주세요!
- 도목 (연화에게서 길동에게 시선을 옮기며) 침입자를 살려주란 말이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걸 너도 알지 않느냐. 모두 무사하려면 비밀 문 여는 법을 아는 자는 죽여야 한다.
- 연화 (다급하게) 우리하고 함께 있으면요, 그것도 법이잖아요!<sup>23</sup>(밑줄:인용자)

23 조규익 (2003). 앞의 책. 140.

민대장의 딸 청과 도적 괴수 이엘한의 딸 연화는 합심하여 길동의 무죄와 면책을 요구한다. 그녀들은 마치 작정이라도 한 듯, 길동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구명에 나서고 있으며 자신들의 아버지와 가족(의적)들을 설득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연화는 길동의 구함을 받은 바 있고, 이미 그에게 연정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설정이 자연스럽지만, 청은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위의 인용문에서도 이러한 이유를 밝혀 묻는 대사가 들어 있다. 딸인 청에게 질문하는 민대장은 길동과 청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것은 딸과 길동의 사사로운 관계를 알고 싶어 하는 욕구와 다르지 않으며, 나아가서는 관객으로 대변되는 청자(관객)의 호기심과도 무관하지 않다.

청은 아버지의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한 채 말을 얼버무리지만, 맥락상 정황으로 볼 때 길동에 대한 깊은 관심과 호의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개인적인 교분이 없는 상태이기에 청 역시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청과 길동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지만, 청이 목숨을 걸고 상대를 지켜야 할 정도로 상당한 호감을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이다.

결국 민대장은 이러한 호기심을 대변하여 길동에게 직접 딸과의 관계를 묻는다. 이에 길동은 자신이 당당한 남자로서 “미인(예쁜 아이)에게 각별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대구한다. 이러한 길동의 대답은 풍류남아로서의 기질을 드러내는 것이며, 청에 대한 관심을 숨기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한 청의 즉각적인 반응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길동을 위해 용서를 빌고 자신을 희생하는 이후 반응으로 볼 때 그녀 역시 길동의 이러한 언급에 대해 불쾌감이나 거부감을 느끼지는 않는다고 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뒤늦게 나타난 연화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연화 역시 길동을 살리기 위해 아버지 이엘한에게 간청을 하고 있고, 규칙 위반을 상쇄한 책략까지 내놓으며 연인인 길동을 살리기 위하여 갖은 모색을 강구하고 있다.

두 연인이 개입하는 상황은 망탕산 요괴에게 괴롭히는 여인(백소저, 조소저)을 구하는 대목과 겹쳐진다. 두 여인이 길동과 관련을 맺고 있고, 요괴처럼 강력한 힘을 가진 이들에게 괴롭히는 두 여인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점이 또한 그러하다. 결국 청은 길동을 도운 죄로 수감되고, 나중에 청이 아니라 자신이 기밀을 누설했다고 자백한 연화 역시 동일한 죄로 처벌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연화는 야만인들에게 납치되는 심각한 위협에 노출되기도 한다.

길동은 두 여인을 구해야 하는 소명을 인정하게 되고, 납치되어 감금된 연화를 구하기

위해서 3막에서는 ‘낮은 절’로 잠입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길동의 잠입과 구출 작전은 3막의 분실로 인해 분명하게 확인되지는 않지만, 원작 소설의 해인사 습격과 동일한 모티프를 수용하고 있으며, 여기에 여인 구조라는 로맨스까지 결부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로터스 버드>에서 연애담은 중요한 개작 사안 중 하나였다. <홍길동전>에서 서사의 전면부에 부상하지 않았던 연애 서사를 핵심 서사로 변모시켰고, 결국에는 여인과의 결연(두 여인과의 인연)과 구출 모티프를 결부하여 <홍길동전>의 이상국 서사의 핵심 모티프를 수용하는 변형을 추구한 셈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자유연애에 관심이 많았던 하와이 이주 한인 2세대의 취향을 반영한 것임에는 틀림없으나, 원작 <홍길동전>에서 간과했던 흥행(인기) 요소였던 로맨스를 첨가하여 무대 공연의 활력과 연극 관객의 흥미를 제고하려는 모색이라는 것 역시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 6. 신이성의 배제와 연계의 이중성

원작 <홍길동전>의 독서 매력 중 하나는 도술과 협의로 요약되는 활극적 특성에서 연유한다. 위기에 처한 길동이 도술과 무술로 자객을 처단하거나, 도적 떼의 우두머리가 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신이한 용력을 과시하거나, 사방에서 자신을 잡으려는 군사들을 농락하는 재주는 <홍길동전>을 읽는 이들을 매료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해외로 나가 국토를 개척하거나, 흥포한 요괴의 무리와 대결하거나, 전투를 통해 장쾌한 승리를 쟁취하는 과정도 주목되는 독서 매력에 해당한다.

이 중에서 <홍길동전>의 후반부에 배치된 이상국 건설 서사는 장쾌한 스토리와 함께 영웅의 초월적 능력이 효과적으로 발현되는 대목에 해당한다. 기존 연구에서도 <홍길동전>이 민담과 설화의 영향을 받아 창조되었다는 견해가 제출된 바 있고, 그 사례로 울도국 건설 대목이 주목된 적도 있다.<sup>24</sup> 울도국 건설 과정에는 위기에 처한 여인을 구하는 설화가 포함되었는데, <로터스 버드>의 맥락으로 환원하면 혼사 위기에 몰린 ‘연화’가 이에 해당하는 인물이라고 하겠다. <로터스 버드>의 각색 과정에서 ‘연화’라는 인물이 도입부부터 등장하여 길동의 강력한 조력자이자 새로운 인물로 활약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길동은 연화라는 여 주인공을 구하는 모험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고, 원작에서 길동의 활빈과 정치의 행적이

24 윤경수 (1999). <홍길동전>의 전기적 성격과 신화의식. 비교민속학, 16. 386-389.

<로터스 버드>에서는 연화의 구출 서사로 변환되었다.

이러한 연화의 위기는 그녀의 아버지 이엘한과 무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화의 위기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면적으로는 길동이 이엘한과의 대립하지 않을 수 없는 서사구조가 구축된다. 흥미로운 점은 길동이 의적의 무리에 편입되고 이엘한과 대립하며 결국에는 연화를 구하기 위하여 행동해야 하는 본거지가 산속에 있는 신기한 공간이라는 점이다. 새로운 아버지(이엘한)와 변형된 서사(연화의 구출)을 위한 공간적 배경으로 설정된 동굴 속 공간은 원작 소설의 신이함을 승계한 공간으로 남겨진 셈이다.

이러한 공간의 초월성에 대해, 박일용은 원작 소설 <홍길동전>의 ‘체제 내적 공간(현실)’, ‘체제 외적 공간(적굴)’ 그리고 ‘대안적 이상 공간(율도국)’의 삼원적 공간 체계를 <로터스 버드>의 개작 과정에서 율도국을 삭제하면서 이원적 공간 체계로 바꾸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엘한이 통치하고 있는 적굴에의 진입이 통상적 차원의 공간 이동과는 달리 ‘비밀의 문’을 통과해야 한다거나 들어가仙境(仙境)을 만나는 등의 사실들은 그 공간 자체가 ‘이상공간’임을 암시”한다는 답변이 제기되어 있다.<sup>25</sup>

이러한 견해를 요약하면 <로터스 버드>에서 길동이 감금된 감옥이 자아를 구속하는 체제라면, 이엘한과 함께 맞서고 있는 동굴 속 초월 공간은 자아가 해방의 길로 나아가는 체제 외적 공간이자 이상적 공간이라는 시사점을 확보할 수 있다. 즉 길동의 현실과 대응하는 측면에서 초월적인 공간이 여전히 필요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상국 건설 서사를 압축하여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었다고도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공간 구도를 콘텐츠 전환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로터스 버드>는 인물(능력)의 신이성을 제거하고 사실적인 관점에서 서사를 전개하고자 하는 개작 의도를 드러냈지만, 새롭게 추가된 이엘한과의 대결에서 요구되는 공간적 배경의 초월성은 인정한 셈이다. 이엘한과의 갈등을 위한 극적 설정에 초월적 공간의 성향을 최소한도로 연계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각색 전체 과정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로터스 버드>는 기본적으로 리얼리즘 관점 하에서 각색된 작품이다. 애초 설정부터 길동은 도술 능력이 없는 인물로 설정되었고, 이로 인해 감옥을 초월적 능력으로 탈출하지도 못하고 특재의 변형인 예팅과의 대결도 보류되기에 이른다. 하지만 길동이 기지를 발휘하여 주위의 인물들로 하여금 길동이 신이한 능력을 가진 인물로 착각하게 만드는 설정은 유지했는데, 이러한 설정은 오히려 범인(凡人)으로서 길동의 특성을 강화하게 된다. 길동이 예팅의 추적에서

25 조규익 (2003). 앞의 책, 73-75.

자유롭지 못하거나 은신처로서의 거처를 갈구하는 행위도 길동이 범인의 범주에 속하는 인물로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범인으로서의 길동이 보다 초월적인 존재, 즉 영웅적 형상에 근접한 인물로 편입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했다고 볼 수 있다.

<로터스 버드>의 2막은 이엘한의 거처로 초월적인 선경을 배치했다. 이러한 거처는 아름다운 산 정상에 위치한다. 이 산 정상에는 큰 바위가 놓여 있고, 그 바위는 비밀 문을 통해 그 안쪽 공간(마을)과 연결된 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비밀스러운 공간은 세외도원을 연상시킨다. 기본적으로는 원작 <홍길동전>의 다음과 같은 묘사에서 연원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각설, 길동이 부모를 이별하고 문을 나매 일신이 표박하여 정처없이 행하더니, 한 곳에 다다르니 경계 절승한지라, 인가를 찾아 점점 들어가니 큰 바위 밑에 석문이 닫혔거늘 가만히 그 문을 열고 들어가니 평원광야에 수 백 호 인가가 즐비하고 여러 사람이 모두 잔치하며 즐기니 이곳은 도적의 굴혈(掘穴)이라 문득 길동을 보고 그 위인이 녹록지 아님을 반겨 문 왈, “그대는 어떤 사람이관대 이곳에 찾아왔느냐, 이곳은 영웅이 모였으나 아직 괴수를 정치 못하였으니 그대 만일 용력이 참여코저 할진대 저 돌을 들어 보아라.” 길동이 이 말을 듣고 다행하며 재배 왈, “나는 경성 홍판서의 천첩 소생 길동이라니와 가중 천대를 받지 아니려 하여 사해 팔방으로 정처없이 다니다가 우연히 이곳에 들어와 모든 호걸의 동료됨을 이르시니 불승감사하거니와 장부가 어찌 저만한 돌 들기를 근심하리오.” 하고 그 돌을 들어 수십 보를 행하다가 던지니<sup>26</sup>

원작에서 길동은 수십 인이 힘을 합쳐도 들 수 없는 돌을 들고 도적 때의 우두머리가 된다. 이러한 용력은 신이한 것이어서, 독자들로 하여금 길동의 영웅성을 복돋우는 역할을 수행한다. <로터스 버드>에서도 이러한 대결 양상은 중요한 수용 대목으로 나타난다. 이엘한의 거처가 그러하고, 이엘한과의 대결이 그러하며, 바위 뒤 동굴 속 세상이 가진 은밀함이 그러하다. 이러한 특징은 원작 <홍길동전>의 전기성을 상당히 염두에 둔 상태로 <로터스 버드>가 각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도록 만든다.

<로터스 버드>는 완전하게 발굴된 희곡이 아니므로, 2막 이후의 내용이 불확실하다.

---

26 김기동/전규태 (1984). 앞의 책. 20-21.

이에, 길동의 신이한 능력과 원작의 전기적 특성이 더욱 확대되어 나타날 가능성을 함부로 배제할 수 없는 텍스트라고 하겠다. 지금으로서는 원작의 신이성과 전기성을 기본적으로 수용했다는 근거만 제시할 수 있을 따름이지만, 이러한 특성이 <홍길동전>의 주요한 독서 매력으로 통용되었다고 할 때 하와이에서도 원작의 이러한 특징을 외면하지만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홍길동전>의 활극적 요소를 <로터스 버드>가 수용한 범위와 수준을 보여주는 가시적 지표 중 하나가, 산중 공간의 초월성이었다는 관찰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 7. <로터스 버드>에 투영된 변안 요소와 그 의미

<로터스 버드>는 원작 <홍길동전>의 주요 사건을 활용하되, 하와이 이주 조선인들의 처지와 상황에 부합되도록 상당 부분 각색된 텍스트이다. 가장 일차적인 요인은 홍길동의 구금과 학대에서 찾을 수 있다. 원작 <홍길동전>에서 길동은 뛰어난 능력과 주위의 경계(시기)에 의해 산정에서 홀로 공부를 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린다. 이러한 상황은 홍판서가 길동을 위해 배려하고 사전의 위협을 막기 위한 예방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알렌의 영역 소설에서 이러한 사안은 감금과 학대로 이해된다. 몰인정한 아버지에 의한 범법 행위로 규정되고 이를 시행한 아버지는 무능하고 잔혹한 부친으로 상정되고 만다. 비록 길동의 구금이 부친의 본의만이 아니었다는 정보가 추가되지만, 진주라는 여인에 의해 농락당하는 홍판서의 모습은 존경과 경외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결국 길동의 탈출은 집안에서의 폭행과 위협으로부터의 탈출로 이해된다. 적서차별과 사회개혁이라는 원작의 포부는 사라지고, 가택 구금과 아동 학대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길동의 도피이자 사랑하는 여인과의 삶을 도모하기 위한 선택으로 상정되는 것이다. 더구나 진주와 예팅의 추적과 위협은 길동을 도피자로, 그리고 새로운 가족의 일원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1막이 길동의 탈출 원인을 밝히고 그가 처한 위기를 설명하는 데에 주력했다면, 2막은 가출 이후 길동이 대면한 사회적 집단에 대한 해석을 반영하고 있다. 생물학적인 아버지이지만 무능하고 냉혹한 홍판서를 떠나야 했던 길동은 은거지를 찾던 중 정신적인 위엄을 갖추고 조직의 수장으로서 활동하는 정신적인 아버지 이엘한과 대면한다. 이엘한은 길동을 보호하고, 길동의 길을 열어주고, 길동의 삶의 지표가 되기에 충분한 자질을 갖춘 이전 세대의

어른이었을 뿐만 아니라, 연인 연화의 실제 아버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법적인 아버지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인물이기도 했다.

하지만 정신적인 아버지와의 관계로 순탄하지는 않다. 그-이엘한 역시 조직의 수장인 만큼 사적인 관계를 넘어서는 공적인 규율을 중시하는 품성을 보여주고 있다. 길동을 조직의 일원으로 수용하는 행위와는 별개로, 조직 내의 반역자(배신자)를 처분하고 조직의 안위를 그 무엇보다 우선해야 하는 공적 입장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길동은 납치된 연화를 구하기 위하여, 그리고 자신과 연화의 공식적인 연인 관계를 확인 받기 위하여, 또 의적 무리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보장받기 위하여 악의 무리인 낚은 절 세력과의 일전을 준비하기에 이른다. 사회 개혁과 빈민 구제 그리고 악인 정치라는 원작의 설정을 일부 이어받으면서도, 길동의 개인적인 영예와 연애 그리고 성장이라는 모티프까지 결부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비록 제 3막의 소실로 인해 그 전모를 밝혀낼 수는 없지만, 이러한 절 습격 사건을 통해 길동은 의적의 무리로 편입되는 과정을 겪고 아버지 흥판서로 대면되는 구(기존) 세력과의 대결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간다고 하겠다.

<로터스 버드>에서는 각색자이자 공연자로 등장하는 하와이 이주 한인 2세대의 의식과 목표가 강하게 투영되고 있다. 그중 가장 전면으로 부상한 변안 요소는 연애 대상의 구체화와 또 다른 아버지의 설정이다. 흥길동을 구금에서 구출하기 위하여 뛰어든 연화나, 길동을 구하기 위하여 배신자의 처벌도 감수한 청은 대표적인 연애 대상으로서의 연인이다. 특히 두 연인의 사랑을 받는 길동을 배치한 점은 <흥길동전>의 이상국 서사에 등장하는 두 소저(백 소저와 조 소저)와의 관련성을 염두에 두도록 만든다.

비록 서양 변안 과정에서 두 여인이 삭제되거나 한 여인으로 조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도, 아름다운 두 여인과의 로맨스는 필경 관극 대상으로서의 <흥길동전>의 흥미를 제고하는 요소로 재현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납치 구금되어 강제 결혼의 핍박을 받는 연화의 수난 상황을 설정하고 이를 구출하는 남성 서사를 결부시킨 점은 영웅담으로서의 미녀 구출 서사를 활용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연화의 아버지로서 도적의 괴수 이엘한을 설정한 점도 주목된다. 이엘한은 생물학적인 아버지를 떠나 사회적인 아버지를 갈구하는 길동에게 나타난 다음 단계의 아버지 형상에 해당한다. 흥판서가 이성적으로 혹은 감성적으로 아버지에 걸맞은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는 인물이라고 할 때, 길동이 대면해야 하는 다음 단계의 아버지이자 이전 세대의 어른의 모습으로서의 인물은 이엘한과 같은 형상을 지니고 있다고 해야 한다.

그러니까 연화(와의 결혼)를 둘러싼 이엘한과의 마찰, 흥판서의 자식이라는 사실로 인한 미묘한 긴장감, 그리고 도적의 차기 수장을 둔 세대 간의 갈등은 결국 길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한 사람의 사회 구성원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대면해야 하는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다. 라강의 표현대로 아버지의 이름을 내면화하는 과정이 아이의 성장이고 정신 세계의 형성이라고 할 때, 길동은 이엘한이라는 새로운 인물로 인해 자신의 정신세계를 구축할 힘을 얻고 아이에서 어른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목표를 부여받게 된다. 이엘한 대신 연화를 구출하러 떠나는 그의 여정은, 그의 삶이 곧 이엘한이라는 또 다른 아버지의 숙명을 이어받을 것이라는 문학적 징후인 셈이다. 이것은 물리적/생물학적/혈연적 아버지(멀어진 조국으로서의 조선)를 벗어나, 사회적/정신사적/현실적 세대(편입된 사회로서의 미국)로 나아가야 하는 하와이 이주 한인 2세대의 정신사적 궤적과 동일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Cho Kyu-ik (2003). The story of Hong Gil-dong and <Loters Bud>. Seoul: Wolin. 13-14.
- Cho, Kyu-ick (2012). An Aspect of the Kareisky Dramatist Yeon, Seong-Yong's Reception about Korean Classics. *Journal of Modern Korean Literature*, 27. 323-356.
- Kim, nam-seok (2011). A Study on Korean Diaspora Play Performed in Hawaii at 1930's. *Dongnam Journal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31. 83-106.
- Lee, Sang-gu (2013). Narration Strategy of <Hong Gil-dong Jeon> and the Writer's Recognition on Reality. *The Journal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Education*, 52. 309-352.
- Lee, Sang-hyun (2019), An Abused Boy and a Rebel: Two Representations of Hong Kiltong by Allen and Hosoi. *Philosophy·Thought·Culture*, 30. 161-187.

## 로터스 버드(Lotus Bud)로 각색된 연극 <홍길동전>의 특징

김남석

부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한국어 요약

**연구 목적** 1930년대 하와이로 이주한 조선인들은 <홍길동전>을 각색하여 <로터스 버드>라는 새로운 희곡을 만들어 공연했다. 이 글은 이를 대상으로 하여 원작의 각색 과정, 그 특징들을 논의해 보았다.

**연구 방법** <홍길동전>을 <로터스 버드>라는 새로운 희곡을 만들면서, 1막에서는 감옥의 수감 모티프와 탈출 동기, 2막에서는 새로운 아버지로서 이엘한의 등장과 대립 의식, 적대자 인물형의 적극적 창조, 연애 모티프의 전면화, 사실성의 강화와 신이성의 계승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이 보인다.

**결론** <로터스 버드>는 『홍길동전』의 모티프와 설정을 수용하면서도 이를 하와이 이주 조선인들의 환경과 성향에 부합하도록 조율한 텍스트이며, 이를 통해 각색 번안 과정에서 나타나는 작가 의식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차이를 확인하고 그 원인을 세분하여 정리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핵심어** 홍길동전, 로터스 버드, 하와이 거주 조선인, 홍길동전의 변용과 그 의미

이 논문은 2024년 11월 2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4년 11월 25일부터 2024년 12월 1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4년 12월 20일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www.kci.go.kr